

 주일한국문화원		<h1>보 도 자 료</h1>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보도일시	2024.03.13.		총 4쪽 (붙임자료포함)	
배포일시	2024.03.13.	담당부서	주일한국문화원	
담당자	사업담당 박지훈, 홍보팀 조은경(+81-3-3357-5970) postmaster@koreanculture.jp			

‘한일2인무 페스티벌 - DDF in Tokyo’ 공연 개최
한일 듀오 댄스 페스티벌 도쿄 공연 7년만에 문화원 무대에서 개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일본 도쿄에서 3월 13일 (월)19시, DDF추진위원회, 구슬주머니와 공동주최로 두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선보이는 ‘한일2인무 페스티벌’ 공연을 개최한다.

2013년 도쿄 가쿠라자카 세션하우스에서 처음 개최된 ‘한일2인무 페스티벌’ 도쿄무대는 제4회째인 2017년1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었으며, 7년만에 다시 주일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무대에서도 한일 양국의 전통 작품과 컨템포러리 작품을 통해 양국 무용계의 현주소와 양국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우정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한일2인무 페스티벌-DDF in Tokyo
- 일 시 : 2024.3.13.(수) 19:00~20:30
- 장 소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
- 주 최 : 주일한국문화원, DDF(Duo Dance Festival)추진위원회, 구슬주머니

- 붙임 1. 프로그램 및 출연
 2. 행사 홍보물



붙임 1 프로그램 및 출연자

1. 마츠리(축제/MATSURI)

일본의 まつり(MATSURI)는 祭(festival)나 祀(worship)등 여러 형태의 한자로 표현된다. 표현된 한자의 공통점은 인간의 받드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평온을 기도하는 작품이다.



<EMICH> 일본 전통무용을 연구하면서 전통적인 기법을 넘어서 창작적인 표현에도 도전하며, 일본 전통 의상 기모노를 입고 자유롭게 춤추며 표현하는 무용을 지향하고 있다.

- **키요나가 치사토** 일본전통무용 하나야기류 사범. 어릴 적부터 일본무용 배우고, 대학 때 창작무용 연구를 시작해서, 창작무용유닛 EMICH를 결성. 국내외 무대, 콩쿠르를 중심으로 활동.
- **이시이 사쿠라** 일본전통무용 후지마류 유자격자, 어릴 적부터 일본무용을 배우고, 대학 때에는 창작무용 연구를 시작. 국내외 콩쿠르, 해외무용공연 출연 이외에 연극작품 등 무대공연에서 폭넓게 활동

2. Melt Moon

의미도 이유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받고 지능을 받고 인격을 받았다.

호숫가에 비춰 흔들리는 모습을 응시했다.

<Odd fish>

고바야시 모에와 와타나베 카렌이 2017년 듀엣 그룹 ood fish를 결성.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2021 컨페디션II 청년 안무가 부문 “아키타츠 아티스트 서포트상” 수상. SAI DANCE FESTIVAL 2021, Duo Dance Festival(한국), 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Festival(한국) 초청 참가.

12th Duo Dance Festival Award 최우수상 수상

2023 Buddhism Dance Festival(한국)초청 참가, 그랑프리 수상



3. 렌지시(連獅子)

인기 많은 일본 무용 중 하나로, 자기 자식을 골짜기에 떨어뜨려 기어올라온 강한 자식만 키운다는 전설을 소재로한 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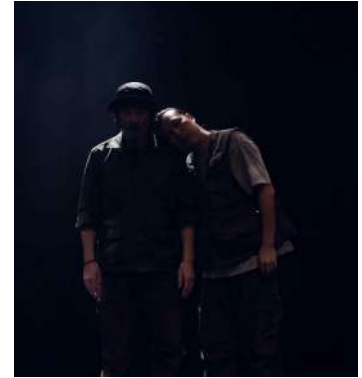
부자간의 정과 사자의 용맹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 **가츠미 요시유키** 어릴 적부터 일본무용을 배워 5살 때 무대 데뷔
일본대학 예술학부 졸업 후 사범자격을 취득하고, 도쿄 긴자에서 교실 개설
신춘무용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2019년3월 국립극장에서 2대 가츠미류 계승
- **가츠미 토모타다** 12살때부터 어린이 가부키에 소속되어 일본 무용을 배움
13살때 가츠미 요시유키씨를 사사. 18살때 계승자시험 합격, 같은 해 국립극장에서 열린 스승의 후계 계승 발표회 출연. 22살때 스승과 함께 렌지시(連獅子) 협연

4. 숙성

작품은 살아있는 형태이며 무용수는 생명의 상태다.
춤을 추는 방법과 기술은 다르지만 작품을 위한 두 무용수의 마음은 같다. 갖가지 다양한 춤의 재료와 기술 향신료로 빚어진 춤은 숙성을 통해 매회 연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조합되고 변화된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막연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 **최진욱 & 임진호** 작품 「숙성」은 전공이 다른 두 안무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국립무용단 ‘산조, 경기도무용단 ‘오물놀이, 흥’ 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두 안무자가 서로의 세계관을 탐구하며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움직임 작업과 공동의 창작작업을 모토로 제작되었다.
한국무용 전공의 최진욱과 현대무용 전공의 임진호 각자의 작품세계관을 탐색하며 날 것의 아이디어와 구성으로 출발하여 차츰 관계가 무르익어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깊어지는 두사람의 관계와 같이 현대한국무용이라는 장르를 새로이 표현한다.

5. 김지은의 북춤

‘각설이가 북을 메고 놀러 왔다.’
품바타령의 한과 진도 북가락의 흥을 노지(露地)의 생명력으로 풀어낸 ‘북춤’ 으로 북 가락 사이사이에 품바의 흥과 한이 잘 녹아 있으며, 관객과의 교감과 소통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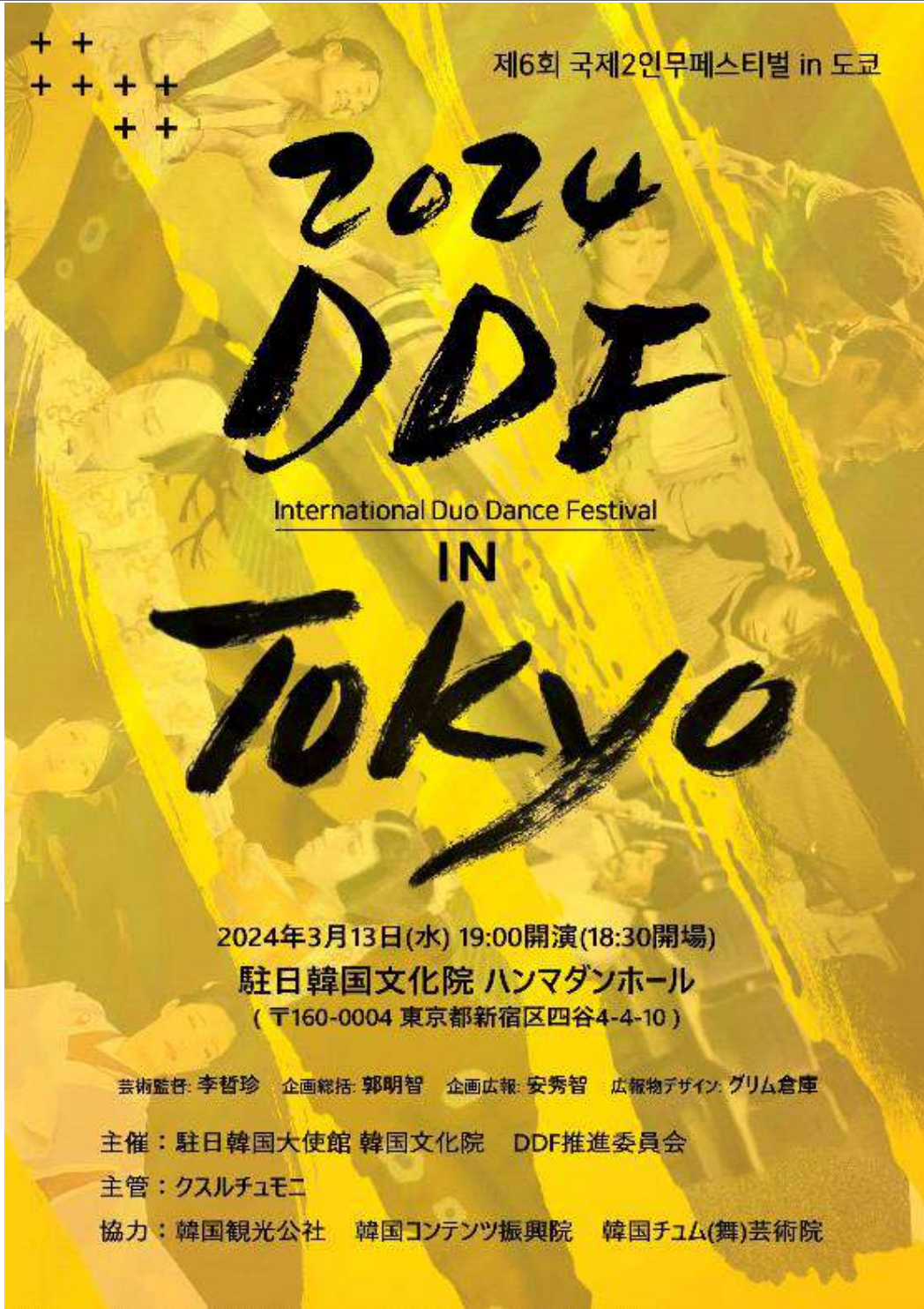


- 김지은

현)김지은춤연구원 대표
현)김지은이화무용학원 원장
전)사단법인 리을춤연구원 이사
선화예술중고등학교 강사역임
이화여자대학교-동대학원 졸업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조정근

극단미추, 서울예술단 단원역임
서울시뮤지컬단 연기감독 역임
현)극단토리움 대표
현)김지은춤연구원 상임연출 및 이사



행사 전단지